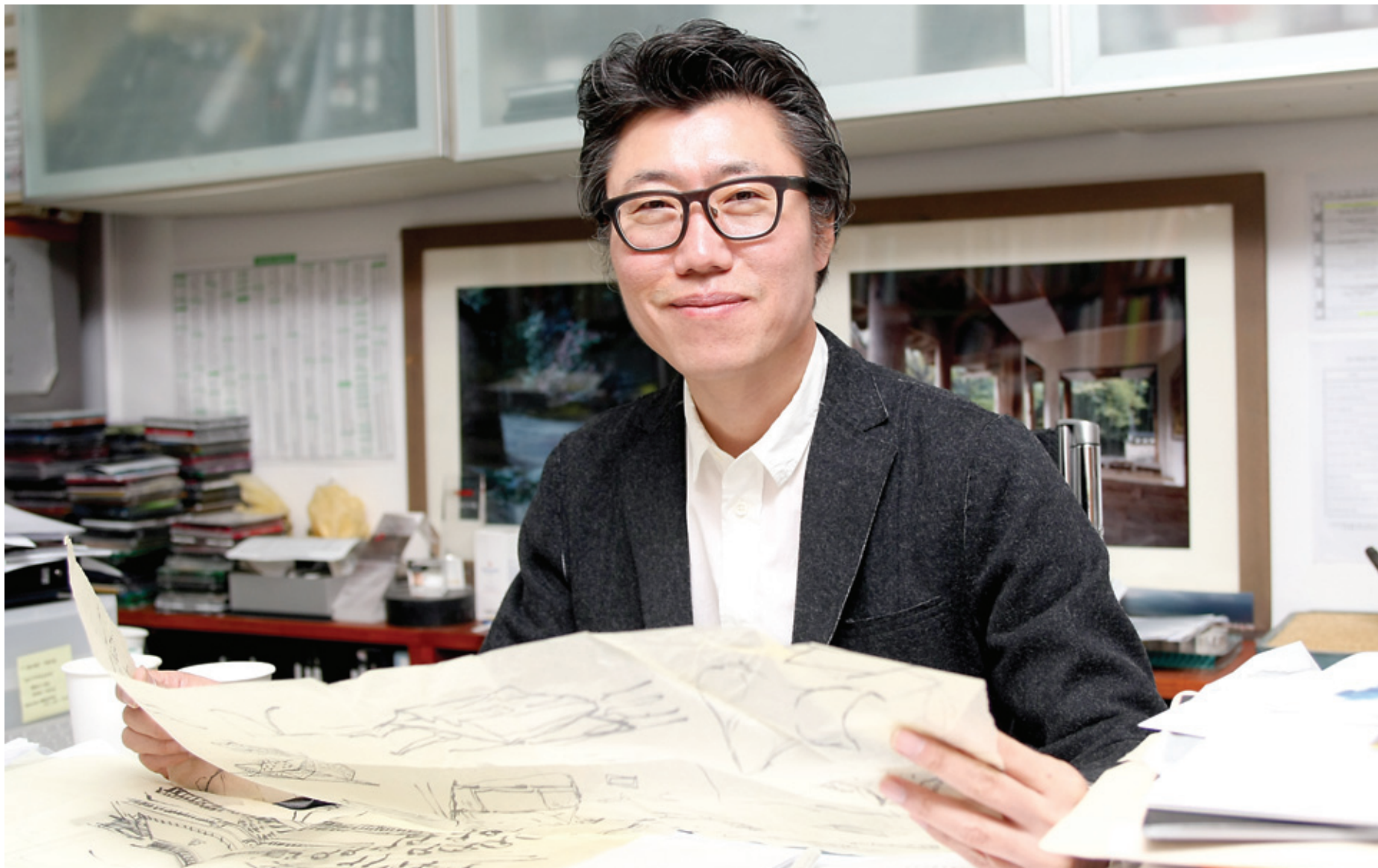


“나는 내 작업이 동양적이고 초현대적이길 원한다”

신정동 국제선센터, 담양 정토사 무량수전 등 디자인한 김개천 국민대 실내디자인과 교수



서울 신정동에 가면 높다란 아파트들 사이로 커다란 탑이 위풍당당하게 서있다. 2010년 10월 개원한 국제선센터의 모습이다. 기존에 없던 사찰형식으로 새로운 도심 사찰의 전형이 된 이 건물은 김개천 국민대 실내디자인과 교수(54·사진)의 작품이다. 김 교수의 작품은 담양 정토사 무량수전과 만해사에서도 기존의 사찰 형식에서 탈피한 이 시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왔다. 그의 이력은 어느 건축가의 이력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는 동국대 선학과에서 동양철학의 선사상을 전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적이면서 동양적인 작품들을 주로 작업해 왔다. 선(禪)에 바탕을 둔 그의 건축 작업은 이미 화려한 수상경력을 통해 인정받을 만큼 혁신적이고 뛰어나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9일 김개천 교수를 만났다. 김개천 교수가 생각하는 건축과 선(禪)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력이 독특하다. 건축가인데 선사상을 전공

했다. “원래 철학과 선학에 관심이 많았다. 이들은 내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예전에 한국건축을 공부할 때는 왜 그렇게 디자인 됐는지에 대해 이해가 가질 않았다. 선학을 공부하고 나니 옛 건축이 이해가 가더라.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 더욱 폭넓게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

건축에 선을 담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

“건축에 선을 담기보단, 선은 건축의 배경이다. 선은 무형(無形)이고 무상(無相)의 세계다. 그래서 모든 것에 열려있고 아무것도 담지 않는다. 아무것도 담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거다. 조선백자 역시 아무것도 없는 무형의 도자기지만, 단순히 검소한 도자기라 말할 수 없다. 형이하학이 형이상학 연계되어야 한다. 나는 전체적인 안목을 보기 위해 노력한다.”

선(禪)건축가로 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내 스스로 선 건축가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그런 선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다행이다. 예전에 나의 작품을 선의 건축이라고 설명한 적은 있다. 아마도 그 얘기 때문에 다들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

다른 건축가에 비해 사찰을 많이 디자인 했다. 기억에 남는 작품이 따로 있는가.

“정토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당시 스님들은 현대사찰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열렸었다. 현대적인 사찰을 설계하고 싶어 몇 번 시도해 봤지만 번번이 거절됐었다. 설계를 해서 정토사 주지 스님을 찾아갔을 때 단연히 퇴짜 맞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스님이 단박에 내 디자인을 받아들여줬다. 지어지지 못할 건물이었음에도 지어진 건물이라서 애착이 간다. 정토사로 그해 한국건축가협회 ‘올해의 건축상’까지 수상하게 됐다. 당시 스님들과 건축가

들한테 현대 사찰의 예를 보여주는 계기가 돼 보람됐다.”

전통 사찰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갈등을 느낀 것 같다.

“이 시대 형식이 요구하는 사찰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왜 우리는 항상 과거에만 안주해 있어야 하는가?’ 하고 끊임없이 생각했다. 스님도 그렇고 불교신자도 그렇고, 우선 웃입는 것만 봐도 너무 전통에만 얽매어 있는 것 같다. 항상 이 점이 안타까웠다. 나는 종교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해석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유연성을 가져야 다음 시대에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또 다른 사찰을 디자인 한다면 어떤 디자인을 할 계획인가.

“최근 작업한 국제선센터는 전통 형식을 어떻게 현대화할까 하는 생각에서 고안된 것이다. 전통을 갖고 현대화하려고 해보야

전통보다 낮기는 힘들다. 그래서 나는 현대의 전통화를 시도하려 했다. 현대적 형식을 전통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예를 들어 어느 사찰을 가 봐도 탑과 법당이 붙어있는 경우는 없다. 국제선센터는 법당과 탑을 하나로 붙여나 전통에 없던 형식을 만들었다. 옛날의 한옥으로 보면 이 건물은 한옥이 아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한옥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도심에서는 땅이 좁아 사람들이 큰 사찰을 지으려 해도 시도자체가 힘들다. 탑 형식으로 디자인한건 그런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했다. 도심사찰의 예를 제시하고 싶었고, 이 시대의 사찰의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심에는 비싼 땅값으로 건물 짓기가 힘들다. 저렴하게 사찰을 지을 방법은 없나.

“건축가에게 건축디자인을 의뢰하면 일반적으로 설계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다. 나도 포교당을 여러 번 설계했다. 포교당 스님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다. 내가 설계한 포교당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비교적 적은 금액에 설계했다. 예전에 싸고 좋은 집을 짓기 위해 ‘건강하고 자유로운 집짓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다. 작품 중 ‘30평 집’이 그 예이다. 시공비용은 1억 5000만원이 들었다. 당시 우리 시대의 중산층 주택의 한 대안으로 설계한 것인데, 그 정도 금액이면 일반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라 생각했다. 우리나라 공공서들이 몇 천억씩 들어 건물을 짓고 있지만, 막상 국제적으로 알려진 건물은 없다. 꼭 돈이 많아 좋은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떤 디자이너를 만나는가도 중요하게 작용된다.”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하고 싶으며, 어떤 건축가가 되고 싶다.

“나는 내 작업이 동양적이면서 초현대적이길 원한다. 이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동시에 갖길 바란다. 또 한번도 듣고 보지 못한 형식이길 원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보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내 건축이 ‘Less but more’ (적은 그러나 많은)였음 좋겠다. Less인 순간 그러나 more라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거의 모든 것이며, More인 순간 그러나 Less가 된다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이 되고 거의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으로 Less나 More는 순간으로 존재하나 순간이기에 그 무엇도 아닌 것이 된다. 즉, 유(有)와 무(無)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는다. 불사선불사악(不思善不思惡)이라 해 어떤 개념에 기대고 싶지도 않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되겠다는 생각이 없다.”

글=이은정 기자·사진=박재환 기자

김개천 교수는...

국민대 교수인 그는 디자이너와 건축가이다.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에서 선사상을 전공했다. 한국 실내건축가협회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초대 작가, 2008-2009년 서울디자인올림픽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0년 행정자치부 주관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한 그는 2010년에는 아시아태평양공간디자인협회(APSDA EXCELLENT AWARD)를 수상했다.



국제선센터



30평집



정토사



문수수법회 포교당

佛紀 2555年 辛卯年 Buddha's birthday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맑고 향기롭게!! 불국정토 구현의 선도 교단!!

<지계청정 지관쌍수 화합대중>

한국불교 원용교단 총본산 무문총림 영평사

증명법주 원 명 개산법주 마 정 부 법 주 정 림

본산중앙협의회 회 장 석해우 부회장 석보당

사무총장 석원돈

조계선림 제1본산 관음사 법주 마 정
임계선림 본산 수암사 법주 혜 조
금오선원 원장 석도일

조계선림 제2본산 보국사 법주 보 당
정토선림 본산 쌍용사 법주 법 천
용봉학림 강주 석마정 영산율원

조계선림 제3본산 법타사 법주 법 인
법요원장 석마승 울주 석혜안

조동선림 본산 영평사 법주 정 림
행자교육원장 석해석
중앙불교대학원 재가불자 교육원장 이흥표

< 동참할 종단과 사암을 모십니다 >

- 총 림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447 / 전화 031)676-0908, 676-3960 / FAX 031)676-2960
- 종단본산협의회 : 서울 중랑구 망우 3동120-7 / 전화 02)496-3952-3 / FAX (02)496-3951